

KIA, 사직 '기세'에 압도 당했나

지난해 롯데 사직 원정 6전 전승 올해 2승4패... 2연속 루징시리즈 양현종 2이닝 9실점 데뷔 최악투 4일 경기서 6-0 승리는 위안거리



KIA타이거즈가 사직야구장의 '기세'에 압도당한 모습이다. 지난해 롯데자이언츠와 사직 원정 경기에서 6전 전승을 거두며 천적으로 군림했던 모습은 올해 2승 4패, 연속 루징 시리즈로 180도 달라진 분위기다.

KIA타이거즈는 2~4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롯데자이언츠와 시즌 6~8차전에서 1승 2패를 거뒀다. 이번 주말 원정 3연전

결과로 KIA는 시즌 23승 24패(승률 0.489)를 기록했고, 5할 승률이 무너지며 다시 6위로 내려앉았다.

KIA는 '대투수' 양현종이 무너지며 주말 원정 3연전을 처참하게 출발했다. 양현종은 지난 2일 롯데전에 선발 등판해 2이닝 9실점으로 데뷔 이후 최악의 투구를 펼쳤다. 양현종은 1회말 1아웃을 잡는 동안 만루홈런을 포함해 7실점하며 흔들렸고, 2회말에도 2점을 더 내주며 마운드를 내려갔다. 3회말부터 조기 가동된 불펜 역시 흔들렸다. 구원 등판한 황동하(3이닝 1실점), 김재열(1이닝 3실점), 광도규(1이닝 1실점)가 추가 실점하며 14점을 내줬고, 타선은 5회말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좌익수 키를 넘기는 적시 2루타로 2점을 뽑아낸 것에 만족해야 했다.

KIA는 두 번째 경기에서도 무릎을 꿇

었다. 2회초 롯데 선발 나군안 공략에 성공하며 김석환의 밀어내기 볼넷과 신범수의 희생플라이, 류지혁의 우전 적시타로 3점을 뽑았으나 6회말 빅이닝을 허용했다.

선발 투수 아도니스 메디나가 5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뒤 6회초 무사 1·2루 위기를 허용하며 갑작스럽게 흔들렸고, 임기영이 아웃카운트 두 개를 추가했으나 유강남에 2타점 적시 2루타, 정훈에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3-4로 역전됐다.

KIA는 7회초 박찬호의 좌중간 적시타로 4-4 동점을 만들었으나 7회말 안치홍의 중전 적시타로 다시 4-5 리드를 내줬고, 8회초 이창진의 적시타로 5-5 재동점에 성공했으나 9회말 최지민이 노진혁에 끝내기 안타를 맞으며 결국 패배했다.

KIA는 사직 원정 세번째 경기를 승리

하며 싸늘이 패배를 면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KIA는 상대 선발 한현희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5이닝 79구를 던진 뒤 다소 이르게 마운드를 내려갔고 구원 등판한 김진욱과 김도규를 두들겼다.

KIA는 6회초 선두타자 고종욱이 중견수 뒤에 떨어지는 2루타를 때려낸 뒤 소크라테스의 우중간 적시 2루타로 선제점을 뽑았고, 이때 한현희가 김진욱으로 바뀌자 최형우의 중전 적시타가 터져 나오며 한 점을 더 뽑았다.

이어 김선빈의 번트 안타가 나오며 롯데의 허를 찔렀고 이우성의 2타점 적시 2루타와 김규성과 류지혁의 적시타가 나오며 6득점 빅이닝을 완성했다.

KIA 마운드는 무실점 호투로 분위기 반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선발투수 이의

리가 5이닝 무실점으로 타선을 틀어막았고 임기영이 3이닝, 김유신이 1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졌다.

다만 KIA는 분위기 반전과는 별개로 올해 롯데 상대 절대 열세라는 고민을 안았다. 지난해 사직 원정 6전 전승을 거두며 천적으로 군림했으나 올해 4월18~20일 주중 원정 3연전에서는 1승 2패(5-7패, 6-0 승, 3-5 패)로 루징 시리즈를 떠안은 데 이어, 이번 주말 원정 3연전도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KIA는 지난 5월 2~3일 홈에서도 1승 1패(4-7 패, 10-2 승)로 우열을 가리지 못해 올 시즌 롯데에게 3승 5패로 저조한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KIA가 목표한 우승권 진입을 위해서는 남은 여덟 차례 맞대결에서 롯데의 기세를 이겨내야 한다. **한규빈 기자**

'두현석의 골=광주FC 승리' 공식 됐다

3일 포항전 1골1도움... 4-2 승 지난 3월 인천·4월 대구전 등 다득점 경기 모두 공격포인트



'두두두두' 그의발끝이 터지면 광주FC의 공격력이 폭발한다. 광주FC 두현석은 지난 3월18일 인천전(5-0 승), 4월16일 대구전(4-3 승)에 이어 지난 3일 포항전(4-2 승)에서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팀의 다득점 승리를 이끌었다.

두현석은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16라운드 홈경기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1골 1어시스트로 FA컵 포함 3연승의 선봉에 섰다.

이정호 감독의 우측면 수비수로 낙점받은 두현석은 티모, 안영규, 이민기와 함께 포백을 이뤘다. 수비수임에도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과감한 공격 전개로 광주의 막강한 화력에 가세했고, 후반 10분 중거리 리슛으로 골대 하단 구석을 꿰뚫으며 역전골을 성공시켰다.

이어 후반 36분에는 절묘한 코너킥을 올리며 안영규의 쇄기골을 도왔고, 이어



광주FC 두현석이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16라운드 홈경기에서 역전골을 터트린 뒤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시스템으로 4-2 대역전승과 창단 후 포항전 홈 무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1골 1어시스트로 포항전 홈 무승 탈출의 주역이 된 두현석은 경기 후 "골이 들어갈 줄 몰랐다"며 "슛을 때리고 나서 보니 골이 들어가 있었다. 보고 나서 세리머니를 생각했다"며 멧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는 이번 포항전 활약에 대해 "2021년

역전패 생각이 많이 났고 내심 불안했지만 우리 선수들 표정을 보니까 다들 너무 진지하고 승리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여서 불안함이 사라졌다"면서 "오늘 경기가 거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만큼 더 거칠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트피스나 몸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두현석은 성장에 대한 의지도 불태웠다. 그는 "제가 주전으로 뛰고 있어도 항상 불안하다"며 "언제까지나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운동할 때나 경기할 때 선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님께서 이길 때나 질 때나 기본을 중요시하라고 똑같이 말씀하신다"며 "저희한테 기대도 크시고 요구도 많이 하시는데 못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공격적인 부분을 믿어주시는 만큼 수비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ACL(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대한 꿈도 드러냈다. 두현석은 "저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목표는 크다"면서도 "목표를 이야기하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상위 4개 팀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규빈 기자



최혜진, 롯데 오픈 우승

최혜진(오른쪽)이 4일 인천 베어즈베스트청라(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롯데오픈에서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을 차지한 뒤 축하 물세례를 받고 있다.

KLPGA 제공

광주 역도 동호인, 문곡서상천배서 우수 성적

아이칸팀 남·여 6명 출전
女경량급 1위·男경량급 2위

광주 생활체육 역도 동호인들이 제82회 문곡서상천배서대회서 우수 성적을 거뒀다.

광주아이칸 소속역도 동호인(사진)들이 지난 3일 충남 서천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동호인부 여자 경량급 단체전(3인 체중 합계 190kg 미만) 1위와 남자 경량급 단체전(3인 체중 합계 230kg 미만) 2위를 차지했다.

아이칸의 홍세리·강예원·박연주는 여자 경량급에서 3인 합계 429kg을 기록, 서울의 손나래·박현지·정연진(합계 375kg)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홍세리가 인상 58kg·용상 71kg·합계 129kg을, 강예원이 인상 56kg·용상 75kg·합계 131kg을, 박연주가 인상 72kg·용상 97kg·합계 169kg을 각각 들어올렸다.

남자 경량급에 출전한 아이칸의 김영수·김한동·서용훈은 3인 합계 712kg으로



722kg을 기록한 서울의 이찬우·이수환·윤철호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영수는 인상 111kg·용상 135kg·합계 246kg을, 김한동이 인상 132kg·용상 160kg·합계 292kg을, 서용훈이 인상 77kg·용상 97kg·합계 174kg을 각각 기록했다.

신용진 아이칸(광주) 대표는 "동호인들이 선수들과 같은 장소에서 시합을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어 참여했는데 좋은 결과를 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역도가 동호인들에게 사랑받는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역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주심 태클 못 보고, VAR 모니터 고장에... 6골 터진 포항전 '오점으로'

보조 모니터 설치에도 경기 속개

'효버지' 이정호 광주FC 감독과 '갯기둥' 김기동 포항스틸러스 감독의 화려한 전술 싸움이 6골을 주고 받는 명승부를 이끌었지만 전반 막판 발생한 VAR(비디오 판독) 이상이 오점을 남겼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와 포항스틸러스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16라운드 전반 44분 발생했다. 광주 이순민이 포항 김인성과 경합 중 넘어진 뒤 오베르단에게 무릎을 밟혔으나 신용준 주심이 이 장면을 보지 못했고, VAR실의 온 필드 리뷰 권

유가 있었으나 모니터 이상으로 경기 속개됐다.

중계 화면에는 모니터에 송출되어야 할 리플레이 장면이 정지 상태로 나타났고, 5초 뒤에는 리플레이 대신 K리그 로고와 VAR이 적힌 이미지가 띄워졌다.

신 주심이 온 필드 리뷰 모니터에 도착해 다시 필드로 돌아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0초. VAR 운영을 맡은 연맹 외주 업체 측이 차량에서 보조 모니터를 가져와 설치했으나 이미 경기가 재개돼 판정을 반복할 수 없었다.

광주 코칭스태프와 관계자들은 격분했다. 이미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발생한

VAR 이상만 세 차례. 앞서 2021년 3월 6일 울산현대전에서는 이찬동의 팔꿈치 가격에 대해 구두 경고가 주어졌 뒤 김영수 주심의 퇴장 온 필드 리뷰 과정에서 VAR 이상으로 원심이 유지됐고 심판평가소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6월5일 충남아산FC전에서는 허울의 시뮬레이션에 대해 경고가 주어졌 뒤 페널티킥 온 필드 리뷰를 시도했지만 VAR에 이상이 생겼고, 서동진 주심은 보조 모니터 설치까지 20분을 기다린 뒤 원심을 유지했다.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본 연맹 관계자는 "VAR 이상 시 경기 속개 여부는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결정이 주심 개개인에 따라 달라진다면 VAR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규빈 기자**